

## 법정 보호수의 관리실태 및 전통경관 특성

- 전라북도 고창군을 대상으로 -

#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and Traditional Landscape Characteristics for Trees Protected by Law

- A case study of Gochang-gun, Jeollabukdo -

안병희<sup>1</sup> · 이명우<sup>2</sup>

<sup>1</sup>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sup>2</sup>전북대학교 조경학과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보호수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거목의 형태로 마을 어귀나 중심 공간에 위치하여 랜드마크(Landmark)적인 기능을 하거나 정자목으로서 휴식과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박봉주 등, 2007). 또한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신선사상, 풍수사상, 유교, 불교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자연관 때문에 현존하는 노거수들은 대부분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숲이 조성되었으며, 마을의 동목(洞木), 정자목 등도 비보적 목적에서 심겨져 보전되어 왔다(강호철과 이정환, 2005).

이와 같이 비보림(裨補林)은 한국적인 전통입지관으로 볼 때 시야가 트여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공간을 위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이라 정의할 수 있다. 비보림은 넓은 의미의 마을숲에 포함하여 마을 주변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 관리되고 보호되어 온 숲을 말한다(신상섭 등, 2008). 따라서 보호수와 비보림 및 마을숲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풍수사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거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및 인간의 관심속에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보호수(천연기념물 포함)의 관리실태 및 경관특성이라는 주제로 고창군이나 문화재

청에서 지정하고 관리되고 있는 57개목의 보호수의 생육현황, 주변 환경조건 및 관리실태 등의 생육저해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와 비보풍수의 경관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관리와 미래지향적인 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전라북도 고창군에 지정된 천연기념물(4곳), 보호수(53곳)를 선정하여 2008년 10월~2009년 5월에 걸쳐 현지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보호수의 입지현황, 식물학적 특성,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관리현황, 전통 경관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II. 풍수지리 이론 및 관련법규 검토

#### 1. 풍수지리 및 비보풍수

풍수지리는 “인간이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는 지혜와 지식”에 해당하는 지리적 민속학이다. 실학자 이증환은택리지에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다음으로 산수의 미학적 요인을 꼽았으며, 첫 번째의 요건인 지리적 요인에 대해서 선조들은 일찍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왔다. 비보란 도와주고 보충한다는 뜻으로 땅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요소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숲을 활용한 비보는 기능상 경제적

이고 실용적이며 비보효과가 좋아서 취락의 비보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최원석, 2002). 즉, 비보 풍수를 통해 명당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터에 대해 인간이 이를 완성시켜 이용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2. 관련법규 검토

노거수목에는 보호관리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보호수로 구분되며 천연기념물은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거나 심미성, 진귀성, 고유성등 문화적 요소가 뚜렷한 특징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이 되며, 고창군의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이다.

보호수는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관련법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예규 제496호 2001, 고창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이며 관리부서는 산림축산과이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입지현황 및 관리특성 분석

총 57곳의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의 입지유형을 살펴본 결과 마을형이 16주로 가장 많으며, 들판형이 13주, 도로형 9주, 동산형 8주, 유적지형 4주, 하천형 3주, 주택형 2주, 산림형과 건물 내부형이 각 1주로 조사되었다. 산림형 1주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수는 마을주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마을을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상징으로 인식되며, 지역민에 의해 보호 관리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57곳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3곳 및 산림청에서 지정 관리하는 1곳, 보호수 1곳을 제외한 52곳은 보호책이 없이 관리되고 있었으며, 기존에 설치된 5곳의 보호책도 크기와 재료, 디자인이 각각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다. 안내판의 경우 2곳을 제외한 55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곳과 산림청 지정 1곳을 제외한 50곳의 안내판 내용은 위치, 수종, 고유번호, 지정일자, 수령, 수고, 흉고직경, 관리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안내판의 크기, 재질, 모양이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외과수술은 27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느티나무가 15주, 소나무 5주, 팽나무 1주, 기타수종이 6주로 나타났다. 소나

무는 전체 10주 중 절반인 5주가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팽나무는 지정된 수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식물학적 · 토양이화학적 특성 분석

총 57곳의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의 식물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느티나무(24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팽나무(10주), 소나무(10주), 왕버들나무(4주), 은행나무(3주)등 순으로 분포하였고, 이팝나무, 송악, 향나무, 주엽나무, 개서어나무, 멸구슬나무 등이 각 1주씩 분포하였다. 식재유형은 한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형태의 단목(44주)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2그루가 1열 또는 마주보고 있거나 3그루 이상이 줄지어 있는 형태의 병목이(10주) 두 번째의 식재 유형이며 한곳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형태의 군식은 3곳으로 확인되었다. 수령은 최저200년(보호수9-14-51 멸구슬나무)에서 최고 600년(천연기념물 제354호 장사송)으로 나타났으며 은행나무의 평균 수령은 446년, 느티나무 299년, 팽나무 311년, 소나무 337년, 왕버들 314년으로 조사되었다.

토양의 이화학적특성은 조경설계기준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pH는 4.51에서 7.84로 평균 6.04로 나타났으며 하급 26곳, 중급 19곳, 상급 11곳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전도도(EC)는 상급 8곳, 중급 48곳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유효인산은 하급 48곳, 중급 5곳, 상급 3곳으로, 치환성 칼륨(K)은 하급 40곳, 중급 15곳, 상급 1곳으로 조사되어 토양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환성 칼슘(Ca)은 하급 13곳, 중급 19곳, 상급 24곳으로 나타났으며, 치환성 마그네슘(Mg)은 하급 9곳, 중급 46곳 상급 1곳으로 확인되었다. 유기물함량(DO)의 경우 하급이 50곳, 중급 5곳, 상급 1곳으로 대부분 보호수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였다.

### 3. 전통 경관적 분석

#### (1) 무실마을

무실마을은 추산봉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하고 마을의 방향이 동쪽향을 바라보며, 마을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풍수적인 관점에서 무실마을은 배산임수의 원리에 따른 입

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 마을 뒤쪽에 서쪽에서 남쪽, 동쪽에 이르는 큰 산에 둘러싸여 있으나 북쪽이 평지로 열려있어 북서풍이 불 때 바람이 마을로 직접 불어 들어오게 된다.

무실마을은 장풍비보를 위해 느티나무로 비보 숲을 조성하여 북서풍을 막고 사합주교의 이상적 지형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비보 숲은 좋지 않은 기운을 막는 역할을 동시에 하며 겨울철 북서풍의 찬바람과 여름철 태풍의 강한 바람을 막으며 마을의 바람, 온도, 습도 등 미기후를 조절하며 전통적인 농촌경관을 이룬다.

비보 숲을 이루는 수목의 수종은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를 포함하여 팽나무, 개서어나무 등이다. 이러한 수종들은 모두 자생수종으로서의 그 지역만의 생태적 가치를 가지며, 오랜 시간을 무실마을과 마을 사람들과 밀착하여 살아왔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보 숲은 풍수지리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생태학적 가치와 역사를 함께 해 온 문화적 가치를 가진 요소로서 수목 한 그루에 대해서만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 하는 것이 아닌, 비보숲의 개념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그림 1).



그림 1. 무실마을 비보숲의 재현모습

(2) 독실마을

독실마을은 서쪽 태봉산 산자락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은 동남향을 바라보며, 마을 앞에는 도로가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는 고수천이 흐르고 주변은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으며 안산에 해당하는 봉산이 있다. 독실마을

역시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전저후고(前低後高) 원리에 따른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장풍비보는 풍수상 장풍적(藏風的) 조건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지형은 주위 사방의 산수가 두루 감싸인 듯 하며 좌우전후에 비거나 빠진 것이 없음을 말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지형에서는 장풍비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명당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지세가 마을을 감싸 안지 못하고 벌어졌거나 빠지는 형세이기 때문에 주로 숲이나 조산이 활용된다. 독실마을의 경우 현재 좌청룡 지형에 수백년 된 팽나무가 마을을 지키며 우백호에 해당하는 지형이 마을을 감싸 안지 않고 벌어져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곳에 비보 숲을 조성, 장풍비보를 통하여 이상적인 주거지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독실마을 비보 숲은 주로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 숲에서 평소 휴식을 취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치르고 있으며, 매년 정월에 당산제를 지내며 숲을 보호 관리하여 현재까지 한국의 전통적인 취락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 또한 보호수 지정에 있어 단목이 아닌 비보숲의 차원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마을의 뒤를 형성하는 활모양의 부분에 느티나무와 팽나무의 후계목을 육성하여 부족한 취락경관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그림 2. 독실마을의 비보숲 재현모습

IV. 결론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과 보호수를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데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보호수의 경관, 생육실태, 관

리실태, 관련제도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였다.

첫째, 현장조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지역의 천연기념물(4그루), 보호수지정(53그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천연기념물과 보호수의 수종은 느티나무(24주), 팽나무(10주), 소나무(10주), 왕버들(4주), 은행나무(3주), 이팝나무, 송악, 향나무, 주엽나무, 개서어나무, 멸구슬나무 등 각 1주씩이며, 식재유형은 단목(44주)이 가장 많은 유형이며 병목(10주), 군식(3주)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지유형은 산림형 1곳을 제외한 마을형(16주), 들판형(13주), 도로형(9주), 동산형(8주), 유적지형(4주), 하천형(3주), 주택형(2주), 건물내부형(1주)이며 마을 주변 근거리에 위치하며 수많은 시간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하고 있다.

넷째, 지정된 천연기념물 보호수는 한 곳에서 수백년 세월을 살아온 토양의 특성을 한국조경학회의 조경설계기준 등급으로 분류하면 pH는 하급(26곳), 전기전도도(하급0곳), 유효인산 하급(48곳), 치환성칼륨 하급(40곳), 치환성칼슘 하급(13곳), 치환성 마그네슘 하급(9곳), 유기물함량

하급(50곳)등 일반식재지의 토양등급(하급)을 적용을 하면 대부분 성분의 적절한 토양개량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현황에서 천연기념물과 보호수 포함 총 57곳 중에 보호책은 5곳만 설치되고 설치되지 않은 52곳은 빠른 시일에 설치하여 외부요인으로부터 보호수를 보호하고 석축이 있는 곳은 25곳이며 경사지가 심한곳이나, 토양유실이 우려가 되는 석축을 제외한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되는 석축은 제거가 필요하다 외과수술이 시행된 곳은 27곳으로 지정목의 부패방지와 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에서 시설한 안내판은 2곳을 제외한 50곳이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

여섯째, 지정된 법정 보호수는 모두 자생수종으로서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가지며 특히 무실마을과 독실마을의 느티나무는 풍수사상에 입각한 비보숲(군식)의 일원으로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며 마을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와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 등 마을의 이상적인 주거환경으로 조성되어 한국의 전통취락경관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